

# ‘뿌리’가 있기에 ‘풀’은 누워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

## 거대한 뿌리

“나는 아직도 앓는 법을 모른다./ 어쩌다 셋이서 술을 마신다. 둘은 한 발을 무릎 위에 얹고/ 도사리지 않는다./ 나는 어느새 남쪽식도 도사리고 앉았다...” (김수영 '거대한 뿌리' 중)

“시어 침을 뱉어라”라는 구호를 주장하며 시인들이 현실에 목소리를 낼 것을 강조한 참여시인 김수영(1921~1968). 그는 3·15 부정선거부터 6·25 전쟁, 4·19 혁명까지 현대사의 거대한 질곡들을 ‘은뿔’로 견뎌내면서 두 뿔이 난 작품을 썼다.

타임머신을 타고 김수영의 삶과 현대사의 비극을 모티브로 문학과 예술의 원류를 찾아 가는 공연이 펼쳐진다. 광주시립극단이 오는 25~26일(오후 7시 30분), 27일(오후 3시, 7시 30분)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선보이는 ‘거대한 뿌리’가 바로 그것.

작품은 김수영이 썼던 동명의 시 ‘거대한 뿌리’ 등에서 모티브를 얻어, 자유를 억압하던 시대의 부조리를 진단해 보고 당대에 문제의식을 던진다. 이를 통해 한국 사회가 여전히 겪고 있는 역사적 갈등, 지역 갈등의 문제를 들여다보는 계획이다.

속도감 있는 장면 전환과 다양한 음악, 영상, 자막 등이 결합하여 극적인 무대를 연출할 예정이다. 극단 ‘골목길’ 예술감독 박근형 작, 극단 ‘파수꾼’ 대표 이은준 연출.

시공간을 넘나드는 이번 작품은 개성 있는 시놉시스로 이목을 끈다.

1968년 6월, 김수영은 교통사고로 적십자 병원

김수영 삶과 현대사 비극 모티브  
광주시립극단 ‘거대한 뿌리’ 공연  
25~27일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  
박근형 작·이은준 연출 극적 무대

응급실에 후송된다. 의식이 희미해지고 죽음까지 코앞에 둔 단발마의 순간, 시를 쓰기 위해 분투하던 그의 지난한 여정이 눈앞에 펼쳐진다.

일본 축지 소극장에서의 추억, 거제 포로수용소에서의 경험을 비롯해 3·15 부정선거와 6·25, 결혼과 출산, 그리고 4·19까지. 이윽고 긴 시간여행을 마친 김수영은 눈을 감고, 그의 곁을 지키던 사람들은 시와 문학, 예술의 미래를 이야기한다.

김수영 역은 노희철, 김수영의 아내 김현경 역은 채윤정 배우가 맡는다. 이 밖에도 고남영, 이정진, 이영환 등 지역에서 활동 중인 배우들이 출연할 예정이다. 이은준 연출가는 제55회 동아연극상 신인연출상, 2016년 올해의 연극 베스트 3, 서울연극제 우수상 등을 수상했다. 대표작으로 ‘아이히만, 암흑이 시작하는 곳에서’, ‘진절할 에이미 선생님의



광주시립극단이 오는 25~27일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김수영 시인을 초점화한 연극 ‘거대한 뿌리’를 선보인다.

〈광주시립극단 제공〉

하루’, ‘속살’ 등이 있다.

이 연출가는 연출의 변에서 “가난하지만 솔직했던,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했던 김수영은 우리와 다르지 않은 한 사람이었다”며 “이번

공연에는 김수영의 삶과 더불어 우리의 역사와 전통, 문제의식 등을 담아냈다”고 말했다.

이어 “‘뿌리’가 있기에 풀은 누워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며 “누군가 역사를 왜곡하거나 부정한다 하

더라도, 언젠가 역사는 스스로 ‘진실’을 증명하기 마련이다”라고 덧붙였다.

전석 1만원(13세 이상 관람 가). 티켓링크 예매. /최류민 기자 rubi@kwangju.co.kr

## 고려 예술의 정수 ‘고려금니사경’

보성 대원사 티벳박물관, 6일부터 ‘난원(蘭苑) 정향자 사경 초대전’

고려시대 유산 중 일반인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고려불화와 고려정자와 함께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평가받는 문화재가 있다. 바로 ‘고려금니사경’(高麗金尼經)이 그것.

고려 예술의 우수성을 볼 수 있는 ‘고려금니사경’을 모티브로 한 전시가 열려 눈길을 끈다.

보성 대원사 티벳박물관은 ‘난원(蘭苑) 정향자 사경 초대전’을 연다. 오는 6일부터 5월 18일까지 박물관 2층에서 선보이는 이번 전시는 고려시대 화려하고 섬세했던 장엄사경을 볼 수 있는 자리다.

“경문을 베끼다”는 뜻을 지닌 사경(寫經)은 일반적으로 공덕을 쌓기 위해 행하는 작업이다. 구체적으로 ‘중생들의 축복을 기원하고, 고인의 극락왕생과 명복을 비는 신앙과 연계된 창작의 행위’이다.

사실 사경은 조선시대 송유역불 정책, 임진왜란

과 맞물려 해외로 유출되고 전통마저 끊어지는 위기에 처했다. 다행히 지난 2020년 전통사경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고 김경호 사경장이 선정되면서 전통의 맥을 이을 수 있게 됐다.

안남찬 박물관 학예사는 “사경작업은 매우 정교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작업”이라며 “이번 전시는 고통에서 벗어나 복받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정스럽고 화려하게 제작됐다”고 밝혔다.

정향자 작가는 김경호 사경장을 스승으로 모시고 전통사경을 배웠다. 이번 전시에서 정 작가는 ‘관세음보살보문품’, ‘장락만년 비전도’ 등을 선보인다. 정교하면서도 불력이 느껴지는 작품은 오랜 시간과 공이 투영돼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작가는 호남대 미술학과 강사, 중앙승가대 전통사경 초빙교수를 역임했으며 한국사경연구회 회원, 국가무형문화재기능협회 회원, 난원전통사경연구회 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관세음보살보문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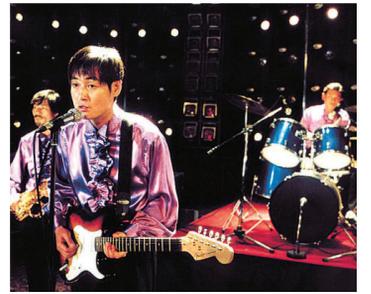
한편 정향자 작가는 “광주는 사경 1700년의 역사상 성지 중의 성지”라며 “광주를 예향이라 부르는 근원은 신라 백지부서 ‘대방광불화엄경’ 사경기에 있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독립영화’ 과거와 미래를 묻다



‘12번째 보조사제’



‘와이키키 브라더스’

광주독립영화관 개관 6주년

12~14일 ‘오래된 미래’ 기획전

건강한 독립영화 생태계 없이 글로벌 K-콘텐츠의 흥행이 가능할까. 영화진흥위원회 독립영화, 지역영화, 영화제 지원 사업 등이 대부분 폐지되거나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독립영화 생태계의 미래’를 질문하는 상영회가 열려 눈길을 끈다.

개관 6주년을 맞은 광주독립영화관(관장 한재삼·이하 영화관)이 기획전 ‘오래된 미래’를 오는 12~14일 영화관에서 선보인다.

12일 오후 3시에는 정재는 감독의 ‘고양이를 부탁해’를 상영한다. 배우나 주연의 작품으로 여고 시절 단짝이던 다섯 친구들이 사회에 진출하며 서로의 우정을 생각해보게 되는 내용이다.

이어 5시 10분 류승완의 옴니버스 영화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 7시 김성수 작 ‘비트’도 만날 수 있다. 이들은 대부분 2000년대 내외에 창작된 소위 ‘밀레니얼’ 작품들이지만 아직까지도 현대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13일 오후 3시 30분에는 ‘기념 촬영’, ‘호모 비디오투스’, ‘비명도시’, ‘우중산책’ 등 단편모음

상영회도 진행한다. 이어 5시부터 임순례 작 ‘와이키키 브라더스’를 관람한 뒤 ‘임순례 데뷔 30주년 마스터 클래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끝으로 14일 오후 6시에 ‘숲’, ‘남매의 집’, ‘세상의 끝’, ‘12번째 보조사제’를 영여 자막과 함께 상영한다. 이후 영화 ‘파도’로 천만 신화를 쓴 장재현 감독과 함께하는 씨네토크 자리를 통해 그의 작품세계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관람료 8000원. 현장예매 가능.

한편 영화관은 지역 독립·예술영화와 극장의 위기를 함께 타개해 나갈 서포터즈 ‘이글루’도 4일까지 모집 중이다. (10명 내외 선별해 12월까지 활동 예정.)

이글루는 기후 위기 시대에 사라지는 북극곰의 얼음집처럼, 지역 극장과 영화가 소멸되고 있는 지금 ‘주류 문화’에 잠식당하지 않는 튼튼한 지역 영화 생태계를 마련하자는 의미를 담았다.

독립영화를 사랑하는 만 18세~34세 청년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매월 1명 이상 광주독립영화관 개봉작을 리뷰해야 하고, 기획전이나 GV 프로그램을 홍보·기록해야 한다.

광주영화영상인연대 이상훈 이사장은 “독립영화의 위기 속에서 그 위치와 중요성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열두 편의 영화를 준비했으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했다.

/최류민 기자 rubi@kwangju.co.kr

## 송광사 사천왕문, 화엄사·불갑사 천왕문 보물됐다

문화재청, 사찰 문화유산 9건 지정

천년 고찰인 순천 송광사, 구례 화엄사, 영광 불갑사 등은 찬란한 불교의 전통과 역사가 깃든 사찰이다. 이들 사찰에는 우리 문화의 우수성이 깃든 다양한 문화유산이 많다.

지금까지 알려진 유산 외에도 최근에는 사찰의 산문 등이 새로운 관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첫 번째 건축물인 일주문, 두 번째와 세 번째 건축물인 금강문, 천왕문은 저마다 독특한 형식과 구조로 예술적,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지역의 ‘순천 송광사 사천왕문’, ‘구례 화엄사 천왕문’, ‘영광 불갑사 천왕문’ 등이 보물로 지정돼 눈길을 끈다. 이들은 조선 후기 건축양식을 잘 드러내는 산문으로 평가받는다.

문화재청은 앞서 언급한 문화재를 포함해 모두 9건을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

역사적 문헌에 따르면 ‘순천 송광사 사천왕문’은 ‘송광사 사천왕문 중창 상량문(1612)’과 지난 2004년 사천왕문 해체보수 과정에서 확인된 상량문서를 통해 1612년 중창된 것이 확인됐다.

보물 지정 사유로는 “흥에 위기의 우회루와 더불어 자연친화적인 위치에 아름다운 경관을 구성한다”며 “천왕문 내부에는 팔각 단면의 심고주를 세워 대들보를 구조적으로 보완해” 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크다는 점을 꼽는다.

고려 후기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구례 화엄사



순천 송광사 사천왕문

천왕문’은 ‘호남도구례현지리산대화엄사적(1636)’ 기록에 의하면 “임진왜란 이후 소실되었던 것을 벽암각성에 의해 1636년 중창된 것”으로 돼 있다.

보물 지정사유로는 “목재판벽과 회벽을 혼용하여 설치한 독특한 벽체구성을 하고 있다”며 “임란 이후 건립된 천왕문 가운데서도 장식이 비교적 화려한 다포식 건물이며 사천왕상을 봉안하기 위하여 달대와 지지대 등을 설치하고 그를 기릴 수 있도록 반자높이를 조절하는” 점 등을 든다.

‘모악산불갑사기(1725)’에 따르면 ‘영광 불갑사 천왕문’은 1725년 이전에 건립된 것으로 확인된다.

보물 지정사유에 따르면 “여러 차례 보수 및 이전(移建)에도 불구하고 건립 당시의 모습을 잘 유지하고 있어 가치가 높다”며 “17세기 이후 서남해안



구례 화엄사 천왕문



영광 불갑사 천왕문

지역 사찰 건물의 건축적 특성으로 나타나는 장식화 경향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 받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한국문예위 ‘청년문화예술패스’ 19세 청년 대상 온라인 접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문예위)는 19세 청년에게 문화예술 관람 지원금 15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청년기에 진입한 청년들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 문화소비의 주체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이끈다는 취지에서 진행한다.

총 240억 원 규모로 선착순 16만 명을 대상으로 순수예술분야(연극, 뮤지컬, 클래식, 오페라, 발레, 국악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자는 12월 31일까지 관람을 마쳐야 하며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청년은 인터파크, 예스24 중 한 곳에서 온라인으로 이용 신청하면 된다. 해당 예매처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또는 상품권 형태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문예위 관계자는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은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추진하는 사업이다”며 “청년들이 문화예술을 편한 마음으로 누릴 수 있도록 향후 지속적으로 지원 규모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최류민 기자 rubi@kwangju.co.kr